

1 본회소식



SNU빌라다르2023 & 베리타스미술상전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SNU빌라다르2023 & 제2회 베리타스미술상전을 개최했다. 18일 열린 개막행사에는 서울대총동창회 김종섭 회장 및 이경영 상임부회장, 모교 정의철 학장과 민복기 부학장을 비롯해 많은 문화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권영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 내빈과 출품 작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전시타이틀을 빌라다르로 명명한 연유와 베리타스미술상을 시행하게 된 의도를 설명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영걸 회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후 본회가 총동창회와 상호 협력하여 개최한 장학기금마련전 등을 통해 총동창회에 장학금을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정의철 모교학장은 축사에서 이번 전시가 70여 년의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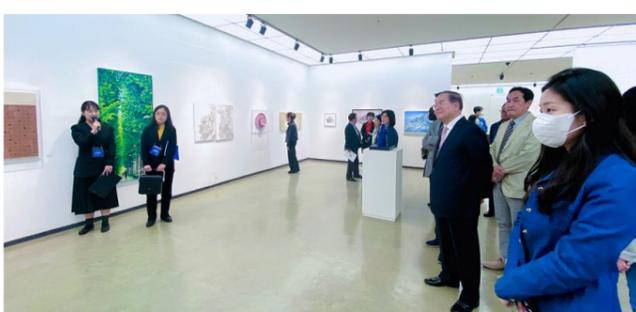
임을 강조하고, 모교가 훌륭한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며, 미대동창회가 사회에 좋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와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으로 개최되는 빌라다르전은 1946년 모교 개교 이후 원로세대부터 젊은 세대까지 동문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라는 특색이 있다.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빌라다르에는 1953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총 200여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모교 졸업전시 베리타스미술상(동창회장상) 수상작가전인 '제2회 베리타스미술상전'이 함께 진행되어, 치열한 예술정신으로 지난 70여 년간 모교를 빛내 온 선배들과, 모교를 갓 졸업하고 앞으로 한국 미술계의 주역이 될 후배들이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 밖에도 전시에 참가하는 작가들의 소품전이 마련되어 전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와 더불어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막행사

민수정(82회화)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행사는 이민주(78회화) 상임부회장의 내빈소개에 이어 사전행사로 박수빈(12국악/디자인) 동문의 대금 축하연주가 있었으며, 회장 인사말 및 내빈 축사 등의 개막식 이후에는 박도현(16디자) 동문이 도슨트 투어를 진행, 참석자들은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먼저 베리타스상 수상자 김재환(17디자인/금공), 김해인(18디자인/시디), 우현주(21서양), 유희정(18디자인/산디), 이재현(17디자인/도예) 등이 직접 자신의 작품들을 설명했다. 베리타스미술상은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본회에서 2021년 제정한 미술상으로, 수상자들의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볼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는데 총동

창회 김종섭 회장과 이경영 상임부회장, 이호갑 평창사업단장, 이승무 사무총장과 송우엽 사무차장, 모교 정의철 학장 및 민복기 부학장, 학생운영위원회 김수민 의장, 서울대기초교육원 권대훈 부원장, 서울송파구체육회 김원섭 회장, 새시대스튜디오 유영쾌 회장, 국제법률사무소 김연호 대표, (사)한국농어촌사랑방송예술인공동체 임병기 이사장 등 내빈과, 본회 권영걸 회장 및 유인수 명예회장, 김소선(에스아트플랫폼 감사)·김춘옥(한국화진흥회장)·박희자(전 한울회장)·성기점(전 여류작가회장)·정옥란(전 한울회회장) 고문, 문화관련인사들로 한울회 이부연 회장, 한국화회 송근영 회장, 서길현 평론가, 이만주 평론가, 김유숙 미술기획사칸 대표, 갤러리B 심혜진 관장 등 갤러리스트와 컬렉터가 참석하였다. 이밖에도 전시에 참가작가들의 소품전이 마련되어 전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와 더불어 작품소장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회소식

제20회 남가주동문회전 개최



미국 남가주동문회(회장 장원경/73음미) 동문전이 LA 소재 S-Gallery(대표 한귀희/68회화)에서 오는 5월 6일부터 오는 6월 5일 까지 한 달간 열린다. 미국 LA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20회를 맞이한다. 이번 전

시에 참여한 19명의 작가들은 미주와 한국을 오가며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다. 참여작가는 강영일, 김경애, 김구자, 김영태, 김영희, 박다애, 박영구, 백혜란, 서동현, 신정연, 신혜자, 심영자, 오성주, 이명규, 이상훈, 장원경, 한석란, 현혜명, 황영애 등 61학번에서 02학번까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THE 20TH ALUMNI SHOW

■ 전시기간: May 6 - June 5, 2023
■ Opening Reception: May 6 (Saturday) 2:00pm
■ Auction: May 20 (Saturday) 2:00pm
■ 장소: S-Gallery
5151 Romaine St., Los Angeles, CA 90029

주위의 산물이 유채색으로 노랑계 물드는 편안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봄도 마음도 들뜬만큼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는 봄이 함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20회 미대 동문전에 오셔서 좋은 작품을 감상하시고 작가들을 축하해 주세요. 오포록 많은 동문들이 오셔서 좋은 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남가주동문회의 미대 동문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옥션은 올해로 7회를 맞이했습니다. 옥션은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후원과 협조로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작가들도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작품은 적당 금액으로 제작 동문들의 후원금이 되고 있습니다. 미대 동문전에 상환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남가주동문회 발동

지 동문들이며, 이번 전시에서 회화 및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각각의 참여작가들은 특별히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정기전시회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을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갖는 특별한 경험들을 캔버스에 남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

시 기간 중에는 일곱번 째 개최되는 서울대발전기금과 더불어, 서울대남가주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옥션행사도 함께 열린다. 옥션 행사를 통해 참여 작가들은 모교 후배들을 돕고, 작품을 구입하는 서울대 동문에게는 특별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작품소장 기회를 갖는 동시에 모교의 후배들을 돕는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옥션에서 판매된 작품으로 제작되고 있는 탁상달력은 서울대 동문들의 인기를 얻어 2017년 이후 꾸준히 서울대미대 동문작가들의 화보 역할을 하고 있다.



모교 MT 간식지원

본회는 코로나19이후 모처럼 엠티를 떠나는 후배들을 위해 간식을 후원했다. 이번 간식은 한현정(08동양) 동문의 후원으로 제공하였으며, 아침 일찍 떠나는 엠티 일정을 감안하여 버스 안에서 아침 대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호두과자를 준비해 학생운영위원회 김수민(23디자인)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엠티는 공예과는 4월 27~28일 인천 을왕리, 서양화과 28일 당일 강원도 원주, 28~29일 조소과는 경기도 가평, 동양화과는 강원도 양



양, 디자인과는 강원도 원주로 다녀왔다. 조소과의 경우 28일 오전 서울 대학교미술관에 모여 버스를 타고 과천호수공원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전시를 관람한 후 가평 숙소로 이동한 뒤 다음날 돌아오는 엠티 일정을 가졌다. 엠티에 가서는 팀별 안주대회 및 바베큐 파티를 하여 팀원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는 선후 배간의 연대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이번 엠티 간식 지원 뿐 아니라 과제 전 시기에 맞추어 컵라면을 제공하는 등 후배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모교소식

2023 진로특강 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

모교와 조형연구소는 지난 3월 29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로특강 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 특강 프로그램을 2회차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미술대학 구성원 누구나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들을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김소래 디자이너와 최이다 작가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모교 졸업 후 CJ E&M을 거쳐 현재 영림 연구개발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김소래 디자이너는 '공예 전공자가 디자이너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산업과 자본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넓은 시야를 가질 것 그리고 워라밸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강의하였다. 한편 최이다 작가는 '그래도 창작을 해야겠다'를 주제로 글에서 그림으로, 그림에서 영상으로, 미술 영상에서 극영화로 분야를 넘어간 사연과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거친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작가이자 영화 연출가, 기획자로 일하는 최이다 작가는 영화 '다음 소희'에 포스트프로덕션 매니

202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진로특강 시리즈
CAREER LECTURE SERIES,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졸업하면 뭐할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는 2023년 2학기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진로특강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 동문과 조형연구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도와주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대 도록을 위한 강의도 진행합니다.

No.	특강 일시	강사	특강 주제
1	3월 29일 (수) 7:00-10:00 pm	김소래	공예 전공자, 디자이너, 매니저를 위한 디자인
2	3월 29일 (수) 7:00-10:00 pm	최이다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3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4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5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6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7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8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9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10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11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12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13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14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15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16	4월 26일 (수) 8:00-9:00 pm	김영희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

*본 강의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진로특강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본 강의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진로특강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저와 스크립터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4월 26일은 정해윤 작가와 이미래 작가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두 작가는 학부생 시절부터 졸업하고 작업을 이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대해 공유한 뒤 학생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두 작가는 모교 졸업 후 다수의 단체전과 개인전을 했으며 정해윤 작가는 '유료 작가 공모전' '준 크레아시옹 국제공모전' 등에서 수상했고, 아프리카 다카르 비엔날레와 스페인 마드리드 아르코 아트페어에 한국 대표작가로 참가하는 등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미래 작가는 현재 미국과 독일에서 활동하며 뉴미디어 아트스페이스, 소마 스페이스, 베를린 문화원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2022년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회에 초청된 바 있다. 한편 진로특강 시리즈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권영걸 국건위 위원장 "용산공원, 생태계·문화·시 융합... 세계 공원들의 모본 될 것"

[서경이 만난 사람 -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대담=이혜진 건설부동산부장

국가 정체성 보여줄수 있는 공간...韓 문명의 총화로 자리매김해야
美 센트럴파크처럼 '외탄성' 안돼...인근 '고층개발 계획' 수정 필요
생태건축·환경디자인 실험 진원지로...K도시 등 수출기반 만들것
서울경제신문 변수연 기자 / 23.04.23



"용산국가공원을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만들자는 얘기는 말도 안 됩니다. 용산공원 개발은 조성된 지 170년이 넘은 공원을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태와 역사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공원을 전 세계에 제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친환경 공간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기술 등이 결합된 세계 공원들의 모본(模本)으로 조성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영걸 신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국건위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용산공원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국건위는 국가 건축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발표가 나온 지 1년 이상이 흘렀지만 시민들이 느낄 만한 변화가 없었던 용산공원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는 임무도 맡았다.

여기에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정비청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지만 국건위 출범으로 흩어져 있던 용산 개발계획들이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권 위원장은 서울대 미대 학장,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부시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등을 거친 도시디자인 전문가로 지난달 27일 출범한 제7기 국건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2008년 제1기를 시작으로 출범 15년이 지난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도시건축 분야에 대해 관계 부처의 정책을 조정,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간사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환경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와도 긴밀한 논의를 통해 건축공간적 해법과 비전을 제시한다.

그는 "국건위는 대부분의 국토 정책 사업들과 관련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고 관련 부처에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며 "오랫동안 국건위가 축적해온 도시공간 및 제도 개선에 관련된 노하우와 함께 도시건축계 전반의 여론 수렴 기능을 활용한다면 용산공원 및 용산지역개발 사업을 힘 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을 맞아 다음 달 초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는 용산공원을 "국가 정체성을 시공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용산공원이 국민과 세계 시민에게 개방되면 한국의 세계화와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국 문명의 총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건축, 환경 조경, 공간디자인 실험이 용산공원과 용산 도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건위가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300만 m²에 이르는 부지 가운데 31%만 반환됐기 때문에 나머지 미반환 부지(69%)를 고려해 개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전체 마스터플랜의 완성도를 높여놓고 반환 부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향후 미반환 부지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자이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개발이 끝난 용산공원의 모습은 어떨까. 그는 "자연생태공원인데 거기에 역사문화공원적 성격이 결합될 것"이라며 "친환경 공간과 AI 활용 보안 기술 등이 결합된 세계 공원들의 모본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용산공원 개발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처럼 녹지가 마천루에 둘러싸인 외탄성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이 적극적인 녹지 공간이라고 하면 고층 빌딩 사이의 공간은 중화적 공간인 '버퍼존(buffer zone)'이 돼야 한다"며 "용산공원 인근의 고층 개발이 계획돼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수정이 필요하고 또 많이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용산정비청 일대 약 50만 m²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해 초고층 건물 등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와 한강 사이 이촌동 등에도 아파트만 있을 뿐 녹지 공간이 전혀 없다"며 "머지않아 태어날 용산공원이 섬처럼 되지 않게 그 주위를 중화적인 공간이 에워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이 한국형 생명도시, 생태건축 개발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용산공원을 개발할 때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며 "용산공원은 전국의 지역 공원에, 그 주변부 개발은 전국의 도시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K도시·K건축 수출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문제, 튀르키예 지진 등 한국 기업들의 K건축 수출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 구조는 자동차 중심으로 짜였지만 고도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건축이 필요하다"며 "국건위에서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미래지향적 도시 체계를 제시하는 K도시건축으로 미래 도시 공간의 선도국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 탄소와 미세먼지 문제 등을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노공학·신소재 등 학문과 ICT가 융복합해 탄소 흡수 및 산소 배출, 미세먼지 흡수 등이 가능한 건축 소재 개발 등 관련 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며 이러한 성과는 세계 여러 도시로 수출돼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차원의 심각한 문제인 지방 소도시 소멸, 인구 감소에 대한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으로 절박한 과제를 되레 기회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약 93%가 도시화된 현실을 감안해 지방 소도시의 공간적 질은 높이고 양은 줄이는 '스마트그린 콤팩트시티(압축도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소도시의 인구밀도를 높이고 스마트팜을 비롯한 농업의 고도화, 양질의 교육 시스템, 스마트 의료, 고밀도화로 유발되는 도시 상권 및 여가 문화 창출, 나아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을 통해 스스로 작동하고 자생할 수 있는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스마트그린 압축도시를 구축하면 도시 인프라, 에너지, 행정 기능 등이 응축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소멸 과정에 접어든 지역의 공간 및 주택을 지역 여건에 따라 환경 생태 복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농업관광, 도시민 휴양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국건위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해 '스마트그린 콤팩트시티' 정책을 검토하고 모형을 구축해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방법을 지자체들에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수도인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한강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권 위원장은 2007~2009년 오 시장이 초선 시장이었을 때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맡았는데 당시 시작됐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재구조화된 것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다.

권 위원장은 "한강은 서울 도심 못지않게 수백 년의 역사적 맥락과 기억을 안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장이 한강 사업을 지휘하더라도 시민들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과 상충되는 개발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괄 개발이 아니라 각 지역과 구간별로 특성을 살려 지역 정체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은 물리적 공간 디자인 외에 '서비스 디자인'이나 '스토리 디자인'으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으로 공간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작동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산 개발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 건축 정책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 또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다를 경우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퍼런스 등의 형태로 권고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건위에는 민간 위원 17인이 함께 위촉돼 활동하는데 이들은 지자체·공공기관·학계·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건축·도시·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학계 10명, 설계 및 디자인 관련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학식과 경륜을 적극 활용해 어젠다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소식



총장과의 대화, 제1회 온더라운지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지난 3월 31일 중앙도서관 관정관 관정마루에서 유홍림 총장과 대담하는 제1회 온더라운지(On the Lounge)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지원과와 총학생회 '정오', 중앙 방송동아리 SUB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1시간 동안 이뤄진 총장과의 대화는 학생들과 총장이 대면해 의견을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이번 1회차 온더라운지는 탁 트인 관정마루에서 진행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차후 온더라운지는 학생 개개인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자 매번 다른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신입생 및 복학생'이었다.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업 관련 질문부터 학생 자치활동이나 휴게 공간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온더라운지는 앞으로 한 학기당 2회씩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1회 온더라운지 역시 유튜브 채널 '스누온에어'에서 생중계됐다. 오는 5월 예정돼있는 다음 행사는 전공(인문사회계열·이공계열), 캠퍼스(연건·시흥·평창), 테마(신입생·취업준비생) 중 주최측이 적합한 주제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예일대총장 초청강연



서울대는 지난 3월 24일 미국 예일대학교 피터 샬로비(Peter Salovey) 총장을 초청해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Emotional Intelligence 주제에 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샬로비 총장은 1986년부터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로 지난 30여년간 Emotional Intelligence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로 심리학 분야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2013년 7월 총장직에 임명되어 대학 지도부 개편, RC대학 설립, 아시아 대학과의 교류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학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이날 강연에는 400여명이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강연에 앞서 유홍림 총장과 양교 교류협력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중앙도서관이 지난 2월 선보인 빅데이터 기반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은 최근 10년간 서울대인 55,697명의 대출이력 2,228,717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서울대답게, 서울대처럼' 독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LikeSNU는 이용자 간의 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다른 서울대 구성원과의 독서패턴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서울대인과 나의 독서 지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 독서 컬렉션을 팔로우하거나 추천하는 "SNU Collection"이 도입된다. 도서추천 방식도 다양화된다. 학생의 관심 분야와 연관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독서경로를 제시하는 '학문분야간 독서로드맵'을 제공하고, 수강이력을 토대로 나의 전공, 수강과목, 연관 전공 관련 도서를 추천해주는 '학사정보기반 도서추천'(Study LikeSNU)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논문작성 지원을위해 '논문지식지도'(Research LikeSNU)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 다전공박람회 개최

서울대학교는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2023 SNU Majors Fair를 진행하였다. 2023 다전공박람회는 포스터 전시회와 다전공 간담회로 구성되었다. 포스터 전시회는 행사 기간 중 문화관(73동) 전시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전시된 포스터에는 전공 소개와 졸업 후의 진로, 선이수 및 권장 교과, 전공 탐색을 위한 추천 교과목, 학과 내 동아리 및 학회 등의 정보가 담겼다. 한편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관정도서관 양두석홀에서 진행된 다전공 간담회에서는 3일간 차례대로 인문사회 및 이학공학 다전공, 학생설계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였다. 다전공 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하거나 여러 전공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된 9명의 학생이 다전공 진입 과정에서의 고민, 다전공 선택 및 이수과정, 학업 및 진로에 다전공이 도움이 된 점, 다전공을 통해 성장한 점, 전공 관련 추천 강좌, 학회 및 스터디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신입생 비상전(飛上展)



중앙도서관은 한국 근대 문헌 100여점과 서울대 출신 작가들의 주요 문학작품이 전시되는 '신입생 비상전(飛上展)-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을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중앙도서관 관정관 관정마루에서 개최한다. 장덕진 관장은 "이번 전시가 2023년 새롭게 입학한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발자취를 몸소 느끼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만우절기념 봄나들이



총학생회 「정오」가 지난 3월 30일 만우절을 맞아해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봄소풍 IN 버들골' 행사를 주최했다. 행사의 드레스코드인 교복이나 '과잠'을 입고 오면 플라로이드사진을 촬영해주는 만우절이벤트가 진행됐으며, 그 외에도 푸드트럭, 미니게임 등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제공됐다.

S카드디자인공모전 '조국의 미래 서울대' 당선



제63대 총학생회(총학) '정오'와 서울대 학생지원과 주관으로 열린 S-card 디자인 공모전에서 총 5개의 공모작 중 제4안, '조국의 미래, 서울대' (◀사진)가 총 6,718표 중 3,148표(46.9%)를 차지하며 대상으로 당선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디자인은 내년 3월 S-card 디자인에 적용될 예정으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디자인이 변경된다.

발달장애아동청소년과 동화책 제작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학생사회공헌단 '해필리 에버 애프터'팀이 지난 2021년 12월 관악구종합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아동·청소년과 함께 제작한 동화책 5권이 관악구 관내 9곳의 구립도서관에 기증되어 관악중앙도서관 배리어프리(Barrier-Free) 동화책 북큐레이션 코너에 전시되었다. '해필리 에버 애프터'팀은 장애 아동의 소외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진 학생사회공헌팀이다. 팀원들은 장애 아동이 주인공이 된 동화책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 '안녕 슈바바', '사막에 간 하니', '나의 우주로 초대할게', '사과와 무지개', '분홍바다'는 구립도서관에 비치되어 더 많은 아동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관악대상시상식 개최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66사회사업)는 지난 3월 24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제25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과 서울대 유홍림(80정치) 총장을 비롯해 동문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취임 당시 저는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보람 있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가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가 튀르키예 지진 성금으로 10만달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며 동창회가 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즐거운 동창회가 되기 위해 팬데믹 동안 다소 위축된 대면 모임 행사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며 동창회 연중 행사를 안내하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이재원(55상학) 원앤씨 회장, 이부섭(56화학공학) 동진세미켄 회장, 조경일(64약학)하나제약 회장, 하기환(66전기공학) 한남체인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상패와 순금으로 만든 'VERITAS LUX MEA' 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 한편 4월 30일자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이승무(72경제) 총동창회 사무총장에게 김종섭 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미동맹70주년 평화음악회개최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이 주관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가 오는 6월 28일 미국 LA에 위치한 월트디즈니홀에서 열린다. 김회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념하기 위해 음악회를 주최하게 됐다"며 "한국을 거쳐 간 미군은 자그마치 320만 명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해준 미군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음악회를 통해 모금도 할 계획이다"고 11일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음악회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금난새 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허영훈 외에 피아노 찰리 올브라이트 그리고 성남시립교향악단 등 총 70여 명이 연주한다. 오케스트라의 주제는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이다. 이번 음악회는 김회장이 한미동맹재단, 주한 미군전우회와 공동주관하며 LA한인회, LA총영사관, 한남체인, ROTC동지회 등 여러 단체가 후원한다. 한미동맹 70주년 음악회인 만큼 미군 전우회, 미8군 사령관 등 300여 명의 미군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음악회의 모금액은 한미동맹재단에 전달돼 퇴역 및 현직 군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역사연구기록관 내년 완공



총동창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역사연구기록관(사진=조감도)이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본 건물의 건축은 임광수(48기계공학) 임광토건 회장의 임기 마지막 때 논의가 시작되어 지난 2014년 서정화(51법학) 전 내무부 장관이 총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50억원 기부 의사를 밝혀 구체화 됐다. 2021년 7월 12일 첫삽을 떠 1년 9개월 여를 지나는 지금, 토목 공

정률은 76.5%, 건축 공정률은 34.5%까지 왔다. 완성되면 연면적 1만890㎡, 최고 높이 27.8m로, 관악캠퍼스에 있는 240여 개 건물 중 27 번째로 커 역사연구기록관이 애초의 취지와 달리 단일 건물로 지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씻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부섭 회장 15억원 기부

이부섭(56화학공학) 관악경제인회 회장이 지난 4월 6일 관악경제인회 기부금 5억원과 관악회 장학금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총동창회에 쾌척했다. 지난해 관악경제인회에 5억원을 기부한 이동문은 총동창회에 총 15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이밖에도 총동창회에는 3월 한 달간 남정현(57건축), 김정호(AIP47기), 이종일(68농공), 홍정화(03경영), 허삼남(68축산), 김원기(glp31기) 동문 등 여러 동문의 장학금 기부가 이어졌다.

동문나눔 골프대회

- 일 시 : 2023년 5월 22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남서울 CC(분당)
- 참가인원 : 40팀(160명)
- 참가비 : 50만원
그린비, 카트비, 캐디피, 그늘집, 오찬만찬 등 비용 일체, 참가선물 제공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성함·출신대학·핸드폰연락처 명시)후 참가비 입금
이 메 일 : jang9869@hanmail.net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예금주:서울대학교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2023년도 연회비 납부동문에 한해 신청 가능
※5월 15일(월) 이후 신청취소하는 경우 참가비 환불 불가

나눔 가족음악회

- 일 시 : 2023년 5월 10일(수) 오후 7시 30분
- 장 소 : 롯데콘서트홀(잠실)
-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 지휘해설 : 금난새(음대66)음악감독
- 연 주 :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 연 : 바이올린 최주하, 바이올린 권예은,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 합 창 : 서울대동문합창단 · 서울대OB합창단
- 신청방법
- 참가신청 : 협찬금을 납부하시는 동문님께 초대교환권 증정 문자(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or.kr) 신청후 협찬금 납부 A석 3만원(R석과 S석 매진)
- 신청양식 : ①제목: 나눔 가족음악회 ②이름 ③단과대학·입학연도 ④좌석 등급 및 매수 ⑤받으실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행사명과 성함기재(예_음악회홍길동)
- 협찬금 납부시 초대교환권 등기우송/공연당일 매표소에서 좌석표 교환입장

5월 수요특강

- 일 시 : 2023년 5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연자 : 손인주 서울대 사회대 교수
- 주 제 : 미래 한국의 정체성과 전략: 주변의 약소국에서 중심의 강대국으로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5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가신청 :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2만 원(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_홍길동5월수요)

7 공지사항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후원금	이사 10만원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3.28-4.30)은 가나다순입니다

부회장 회비
김선학(83공예) 김순애(78응미) 김지명(69회화) 나성숙(71응미) 변영혜(78회화)
서명덕(71응미) 이혜민(74응미) 임영선(79조소) 임철순(74회화)

이사회비
박덕실(81회화) 박혜령(74회화) 서효숙(81회화) 송인옥(82회화) 전민숙(74조소)

일반회비
강명순(59회화) 강필호(석23공) 고 상(박19공) 김광숙(69회화) 김명은(17동양)
김 봄(05조소) 김여경(14조소) 김연하(13디자) 김영현(16동양) 김유정(07동양)
김정아(17서양) 김지윤(석22공) 김진영(석98공) 나형민(91동양) 남재현(00동양)
루자수안(19공예) 류은선(16동양) 박세은(12조소) 박유현(17서양) 박현호(11서양)
서길현(91조소) 성하은(17서양) 안영나(80회화) 양호일(58응미) 유지은(16공예)
이경희(67응미) 이문정(18공예) 이부연(71응미) 이부웅(62회화) 이서윤(17서양)
이승은(14동양) 이혁재(15공예) 이혜리(17서양) 임예은(17동양) 전향섭(79조소)
진영선(64회화) 최미서(석22디) 홍규만(석23공) 황시연(17서양)

후원금 김소선(63조소) 29만원 이혜민(74응미) 3만원
광고후원금 성기점(58회화) 20만원 허진(81회화) 20만원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민여(62회화) 본인상	2023년 3월 22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오병욱(76회화) 부친상	2023년 4월 6일,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이경자(57회화) 부군상	2023년 4월 26일,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정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전시회 등 개인·단체·기업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발송부수 : 약 3500부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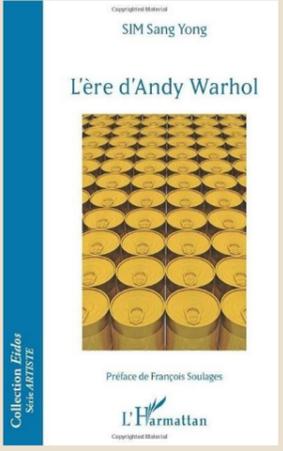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플(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F(안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사이즈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100*80	6,6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저서출간 및 아트북콘서트 심상용(81회화)



심상용 동문이 지난 2월 출간한 '앤디 워홀의 시대 L'ère d'Andy Warhol'가 Art Book Concert에 선정되어, 4월 5일 서울대학교미술관 오디토리움에서 저서를 기반으로 한 강연과 대담, Q&A를 진행했다. 이번 저서를 선정한 서울대학교미술관 Art Book Concert는 현대미술 관련 국내 연구자의 최신 저서 중 우수한 해외 발간 연구 도서를 선정하여 미술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북 콘서트 형식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심동문의 L'ère d'Andy Warhol는 "앤디 워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예술과 소프트파워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두 권만큼의 가치가 있다. 미술사 학자인 저자는 워홀 및 대표적인 팝아트의 실제 작품을 깊이있게 설명한다. 또한 워홀을 선전하고, 특히 유럽의 미술가들에게 워홀로 대표되는 미국 팝아트를 기준으로 삼게하기 위해서 미국의 미술과 소프트파워 시장 광고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해체하여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팝아트와 앤디 워홀이라는 브랜드가 예술의 이념적인 역할, 나아가 실용적인 사회적 역할을 펼쳐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대항-역사'에 해당하는 저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한편 심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9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제8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와 박사(D.E.A.), 파리 제1대학에서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인생에 예술이 필요할 때', '재앙과 현대미술', '시장미술의 탄생', '속도의 예술',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제9의 예술 만화가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중섭미술상 수상 윤동천(81회화)

윤동천 동문이 지난 3월 24일 제35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중섭미술상은 1956년 작고한 이중섭 작가를 기리기 위해 결성되었다. 조선일보미술관이 후원하는 이 상은 권순철, 이만익, 배병우 등 한국 현대미술계에 이름을 남기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끊임없이 실험하는 작가들에게 주어졌다. 윤동문은 모더니즘 형식의 회화부터, 팝아트 성격의 개념미술까지 장르도 자주 건너뛰며 작품의 궤적이 실로 다채로운 작가다. 또한 지나친 난해함을 개성으로 삼는 여타의 현대미술과는 달리, 해석 가능성을 위한 힌트를 제목에



작하였다.

꼭 남긴다. 전시장에 텅 빈 풍선을 띄워놓고는 '정치가-공약'(2011)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식으로, 소통이 쉬워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윤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새 매체에 대한 흥미 때문에 미국 크랜브룩미술아카데미에서 판화를 공부했다. 1991년 제1회 토탈미술상 관장상, 1992년 석남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30년간 재직한 모교에서 지난해 정년퇴임해 전업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울산시립미술관 시민아카데미 초빙 신정훈(교수/서양)

모교 교수 신정훈 동문이 지난 3월 17일 울산시에 위치한 울산시립미술관 1층 다목적홀에서 2023년 상반기 1회차 시민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은 '1950-70년대 한국 추상미술의 전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20세기 한국미술, 특히 추상미술의 전개와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제강점기에 부상해 1950년대에 본격화된 추상 운동은 이후 '현대', '전통', '전위' 등과 같이 한국미술이 풀어야 할 여러 쟁점을 다뤘다. 울산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 추상미술의 부상과 안착, 변모의 부침의 과정을 살펴



재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보면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궤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문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후 미국 빙엄턴 소재 뉴욕주립대 미술사학과에서 1960년대 이후 서울의 변화와 미술의 전환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조명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박사후 연수 연구원 및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학술연구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선임 최은주(83서양)

최은주 동문이 지난 3월 24일 서울시립미술관장으로 선임되었다. 최동문은 "세계미술계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서울에 쏟아지는 때인 만큼 서울시립미술관을 서울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라며 분관체계를 잘 활용해서 SeMA를 역동적인 미술관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1개 본관과 10개의 분관(24년 기준) 체계를 가진 미술관으로서 각각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SeMA로 통합시키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큐레이터들을 비롯한 미술관 전문인들을 반듯하게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이론전공 석사, 미술교육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최동문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5년간 학예연구실장, 보존관리실장, 덕수궁미술관장, 서울관운영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서울관 개관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5년 경기도미술관장과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구미술관장으로 일하며 프랑스 매그 재단과의 공동 전시, 프랑스 설치미술가 다니엘 뷔렌 개인전 등 굵직한 전시를 개최했다.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이론전공 석사, 미술교육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최동문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5년간 학예연구실장, 보존관리실장, 덕수궁미술관장, 서울관운영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서울관 개관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5년 경기도미술관장과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구미술관장으로 일하며 프랑스 매그 재단과의 공동 전시, 프랑스 설치미술가 다니엘 뷔렌 개인전 등 굵직한 전시를 개최했다.

대구미술관 다티스트 선정 이기철(83조소)

이기철 동문이 지난 3월 대구미술관의 '2024 다티스트(D-Artist, Daegu-Artist)'에 선정되었다. 다티스트는 대구미술관이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독창적이고 활발한 작업을 지속하는 작가를 선정해, 이듬해 개인전과 학술행사, 아카이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위원회는 이동문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잠재된 예술가적 본성을 폭발시켜온 것에 주목했다"고 평했다. 이동문은 조각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을 던지며 조각뿐만



미술관 등 주요 국내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아니라 퍼포먼스, 회화 등을 오가면서 작품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예술가로서 작업의 의미와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실 프로젝트', '공간연습' 시리즈를 선보여왔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 조소전공에 이어 부산대 대학원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4년 김종영미술관 '오늘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모란미술관 등 주요 국내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9 회원동정

저서 '3분의 행복' 출간 강석호(91주소)

강석호 동문의 글과 그림을 함께 모은 책 '3분의 행복'이 지난 3월 1일 출간됐다. 이 책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린 그의 전시 '3분의 행복'을 계기로 출간되었다. 전시와 연계된 책이지만 기존의 전시도록에서 벗어나 강석호가 평소 써둔 담백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묶은 수필집이다. 강동문은 자신이 하루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 호기심을 가졌는지를 하루라는 시간에 담아 글로 서술했다. '3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있어 일상의 진부함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시간을 의미한다. 한편 강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뒤



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의 마에스터슬러(얀 디베츠 Jan dibbets교수 사사)를 졸업했으며 2000년에 스위스 바젤의 UBS아트어워드와 2004년에 한국 서울의 석남미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8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 2008년에 금호미술관의 '유토피아, 이상에서 현실로'와 아트스페이스3의 '이것을 보는 사람도 그것을 생각한다.'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강동문은 21년 6월 작고하였다.

2023 대한민국가치경영대상 수상 김리진(01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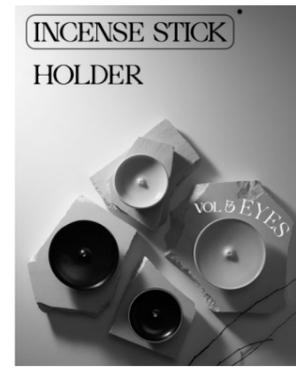
김리진 동문이 2023 스포츠서울 라이프특집 혁신한국인&파워코리아에 선정되는 한편 대표로 재직 중인 CICA미술관이 미래지향적 창작 실험 무대로 떠오르며 지난 3월 17일 개최된 '2023 대한민국가치경영대상'에서 '아트디렉터 부문대상'을 수상했다. 김포에 위치한 CICA(Czong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미술관은 1994년 김종호 조각가가 30여 년간 작업장으로 쓰다가 2015년 미술관으로 등록한 독특한 문화공간이다. 미술관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김



동문은 CICA미술관을 뉴미디어아트 전시장으로 활용면서 젊은 문화 예술 창작자를 후원하고 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에서 뉴미디어와 조소를 공부했고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에서 미디어아트와 텍스트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CICA미술관 대표, 아트디렉터, 출판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세라믹 브랜드 호은과 콜라보 신문규(13디자)

신문규 동문이 지난 2월 22일 세라믹 브랜드 호은과 콜라보한 Holiday 인센스 시리즈를 런칭했다. 신동문은 조선의 소반들이 가진 비례와 조형미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를 모티브로 도예 작업을 하고 있다. 전통의 도자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선보이는 호은과 콜라보하여 이번에 제작하는 인센스 홀더도 신동문의 작업 세계에서 이어지는 작품이다. 흑백의 EYES 인센스 홀더는 고요하게 빠져드는 흑백의 눈 컨셉의 제품으로, 인센스 홀더를 태우면서 고요함에 빠져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호은 관계자는 "전통적인



도자기와 젊은 감각의 신문규 작가의 콜라보로 선보이는 이번 Holiday 시리즈는 호은의 야심작"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도자기 명인들과 함께 새롭고 의미 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동문은 2020년 모교 디자인학부(도예전공)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를 수료하였다. 2019년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피우다전', 2021년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팝업스토어 '도심', 2022년 갤러리 아트앤네이처 'inherited'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움켜잡는 디지털 박상민(15주소)

박상민 동문이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엠에이앰피(Meatball and Meshed Potato/대표 박상민) 온라인갤러리에서 기획 전시 '움켜잡는 디지털'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온라인 미디어의 고유한 문법으로 예술적 표현을 모색하는 김다슬과 김혜리(14서양) 두 작가를 조명한다. 이들의 작업을 잇는 메타버스 공간은 현실과 가상 사이 경험이 증대한 오늘날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되묻는다. 엠에이앰피(MaMP)는 국내에서 활동하



는 예술인과 동시대 미술을 조명하는 국제적인 웹 플랫폼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고해상도의 실감형 콘텐츠를 구현하고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및 미술품 접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2022년 소리의 몸짓, 2021년 800000000, A의 불안, 가짜와 진짜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온라인 갤러리 엠에이앰피(MaMP)의 대표로 활동중이다.

S-ART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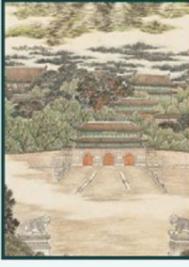
에스아트몰은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소개함으로써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갤러리입니다.

에스아트몰과 함께할 작가님들을 모집합니다.
오리지널 작품뿐 아니라 판화, 공예, 아트굿즈 카테고리를 점차 확대해나가며 함께 에스아트몰을 키워나갈 작가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 할인 가격으로 작품들을 소장하세요.
서울대학교 동문들과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께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MY FIRST COLLECTION〉

이달의 기획전 'My First Collection'을 호응에 힘입어 5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에디션과 아트포스터를 통해 나만의 컬렉션을 시작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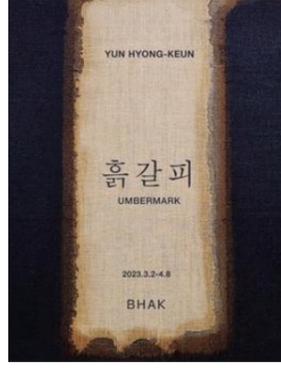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sartmall.com

흙갈피 Umbermark 윤희근(47회화)

윤희근 동문의 개인전 '흙갈피Umbermark'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BHAK에서 열렸다. 흙갈피라는 전시명은 윤희근의 예술적, 정신적 기초를 함께 담고 있다. 흙갈피는 땅의 지표면을 덮고 있는 '흙과 책의 낱장 사이에 끼우는 물건인 책갈피의 '갈피'를 조합한 제목이다. 마포 천바탕에 다색(Umber)과 청색(Ultramarine-Blue)을 머금은 붓이 지나간 흔적은 윤희근만의 고유한 화풍이다. 또한 땅은 윤희근에게 물리적, 정신적, 예술적 대상으로서 다중적인 장소였다. 첫번째는 화가 자신이 딛고 서 있는 현재의



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땅과 예기치 못한 죽음. 두번째는 중국에 모든 만물이 회귀하는 땅이자 미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예술적 영감의 대상으로서 현실의 자연과 자연을 닮은 자신의 그림을 의미한다. 한편 윤희근은 모교 회화과에 입학하였으나 이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학사를 졸업하였다. 1978년 한국미술대상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1회 김수근문화상 미술부문을 수상하였다. 경원대학교 회화과 교수와 예술대학 학장, 경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이우환 개인전 이우환(56회화)

이우환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4월 4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그의 조각들은, 그가 1956년에 일본으로 이주해 모노하를 주도하기 시작했던 1968년과 동일한 연도에 처음 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작업을 이어 온 '관계항(Relatum)' 연작의 연장선에 있다. 이우환은 무(無)에서 시작하여 자기 자신의 표상으로서의 표현을 만들고 현실과 맞물리는 현상의 파편으로서의 작업을 보여주고, 타자와의 교류에 열



림미술관과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하였다.

려 있는 표현으로서의 작업을 만들어낸다. 한편 이우환은 모교 회화과에 입학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우환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미술상(2000), 일본세계문화상(2001) 등 국내외의 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22년에는 고베의 효고현

생명의 노래 김병중(74회화)

김병중 동문의 개인전 '생명의 노래'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Gallery U.H.M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그림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재료에서도 새로움을 추구한다. 천연 재료인 치자, 감초, 자운영, 땡감 등을 활용한 안료로 한국적 미감을 독특하게 표현한다. 김동문의 '화홍산수'는 생명이 만개하는 순간, 분출하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1979년 전국대학미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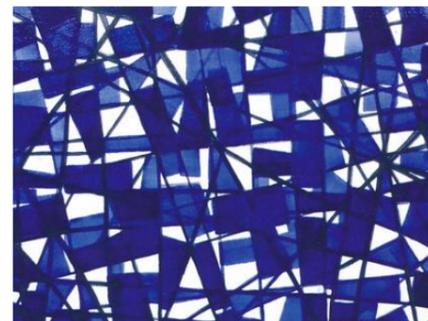


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및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

했으며, 1980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1985년에 모교 동양화과의 교수로 부임한 뒤 2001년에는 모교 학장,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및 조형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다. 현재

성기점 초대전 성기점(58회화)

성동문의 개인전이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열린다. 유화로 제작된 성동문의 다양한 작품들은 늘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성동문은 자연의 무한한 섭리를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선, 면, 색으로 표현한다. 교차하거나 한 방향으로 그어진 선들은 화면 위에 영원한 힘을 부여한다. 한편 성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회화과 석사를 졸업하였다. 제10회, 15회 국전 입선, 제1,2회 신인예술상전 등을 수상하였으며 1972-83년에 창작미술협회전과 한일작품교류전, 1993년 예술의전당 개관기념전 등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한국미술협회와 창작미술협회 회원



으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1979년 9월 동덕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이후 2023년까지 28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동덕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를 비롯하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등에서 31년간 제자들을 지도했다. 1973년에 창립한 사단법인 한국여류화가협회의 창립멤버이자 제11대 회장 등 여러 역할로 봉사하면서 현재는 화단에서의 여성작가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에 힘써오고 있다.

으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1979년 9월 동덕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이후 2023년까지 28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동덕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를 비롯하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등에서 31년간 제자들을 지도했다. 1973년에 창립한 사단법인 한국여류화가협회의 창립멤버이자 제11대 회장 등 여러 역할로 봉사하면서 현재는 화단에서의 여성작가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에 힘써오고 있다.

성기점 초대전

서울시 중구 퇴계로 145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
Tel. 02- 3408- 4164
평일, 주말 10am-5pm
공휴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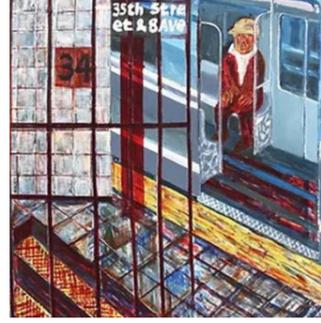
5. 24 - 6. 4

후원광고

SUNG KEE JEOUN
Solo Exhibition

I SEE YOU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의 개인전 'I SEE YOU'가 지난 3월 28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장디자인아트에서 열린다. 서동문은 세계 여러 도시를 수시로 드나들며 작가이자 한 인간으로의 시선을 넓혀왔으며, 도시인들이 만드는 여러 종류의 풍경을 통해 인간에 대한 작가의 끊임없는 관심을 그림으로 표현해왔다. 이번 전시는 서동문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동시대와 호흡하고 발전하려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인성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인문학적



년간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성찰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회화과 학사와 동대학원 회화과 석사를 졸업하였다. 1978년 제1회 중앙미술대전 특선, 1984년 제7회 중앙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하고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2014년 제26회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하였다. 독일 함부르크 국제 미술아카데미 초대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약 20여

적(敵) 유현미(83조소)

유현미 동문의 개인전 적(敵)이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갤러리 나우에서 열렸다. 유동문의 작업 Still Life, Composition, The Numbers, Bleeding Blue, Good Dream 등의 대표적인 시리즈들은 사진, 회화, 조각, 설치, 영상을 아우르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사진작업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는 그녀의 소설이 더해져서 모두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되어지는 새로운 형식의 작업을 보여주었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 조



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소과 및 뉴욕대학교 창작미술전공 대학원, A.P.C를 졸업하고 1988년 관훈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미술 장르의 철학적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여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비엔날레 등 전시와 비엔날레에 참가하였으며, 일우사진상, 모란 미술상 우수상, 미국 아모스이노갤러리 주최 공모

상서로운 꿈 김덕용(81회화)

김덕용 동문의 개인전 '상서로운 꿈'이 지난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는 순환이다. 김동문은 언젠가 흩이 되어 사라지는 인간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영속되게 살아가고 순환해오는 자연의 이치를 담고자 했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구현한 것이 이번 전시의 타이틀, '상서로운 꿈'이다. 김동문은 자개, 나무 등 한국적 요소가 담긴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전통 재료에서 초석이나



작가의 길로 들어섰고, 이후 20여 년간 꾸준히 활동해왔다.

밑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가지는 정신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하나의 시리즈 연재처럼 이어진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 후 계원예고에서 10년간 재직했다. 이후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자 전업

고독의 박제 그리고 부유 허진(81회화)

허진 동문의 초대전 '고독의 박제 그리고 부유 The Taxidermied Solitude _Floating'전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갤러리PaL에서 오는 5월 9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허동문은 작가의 다층적 기억을 인문학적 입장에서 재해석하면서 회화적으로 풀어나간다. 인간의 기억은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기억의 축적이 곧 역사이며 또한 역사가 개인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점을 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유목동물+인간-문명 시리즈는 과학문명승배에서 비롯된 피해를 치유하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생태론을 기반으로 형상화한 연작이다. 유목동물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등 여러 이



민국미술대전 특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용봉학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수로 재직중이다.

미지의 나열은 자연과의 상생과 조화를 강조하는 작가의 소망을 나타낸 한편, 이종융합동물+유토피아 시리즈에서는 유전자 조작 및 가공생명복제 등의 유전공학기술이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만이 아닌 혁신을 함께 추구하며 한국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작가의 고뇌와 예술정신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허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대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0-8
 갤러리PaL (Tel: 010-2217-3210)
2023. 5. 9 - 5. 27
 허진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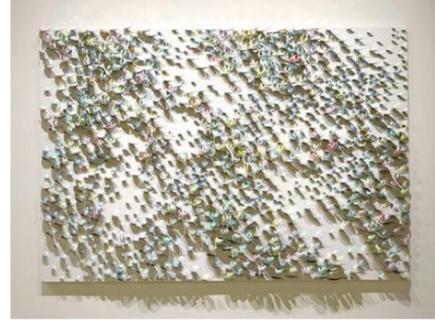
고독의 박제
The Taxidermied Solitude
그리고 부유
 _Floating

후원광고

12 회원동정-전시

권용래 : 손으로 빛을 그리는 작가 권용래(82서양)

권용래 동문의 개인전 '권용래: 손으로 빛을 그리는 작가'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D갤러리에서 열렸다. 권동문은 하얀 평면 위에 스테인리스 금속을 붙여 빛을 아름답게 반사시킨다. 반사된 빛은 실제 공간 속에서 다양한 빛의 의미를 제시한다. 그 의미는 감상자에 따라, 진리로서의 빛일 수도 있으며, 가상의 공간 속에서 빛나는 빛이 되기도 한다. 권동문의 회화는 금속의 물질성과 함께 환영과 상상을 포함한다. 환상성이라



는 미술의 의미는 추상예술에서 기피했던 문제였지만, 작가는 적극적으로 이 경계를 넘어서 물질과 가상의 혼합된 새로운 작품의 의미를 제시한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1989년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1992년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수의 단체전과 20여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Skin Deep Still Life 정상곤(83서양)

정상곤 동문의 개인전 "Skin Deep Still Life"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통인화랑에서 열렸다. 정동문의 정물은 꽃이라는 굴레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붓 터치와 진솔한 감정을 꽃이라는 생명체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주관적인 작가의 감정과 동시에 객관적인 관찰을 통한 묘사는 무한한 실재를 유한한 작가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캔버스 위에서 물감은 흐르고 빠른 붓질에 의해 혼합되며 겹겹이 쌓아진 붓질의 커는 어느새 꽃의 형상으로 승화되었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동양



화과 졸업 후 서울, 베를린, 탈린, 동경, 후쿠오카, 등 국내외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총 43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정동문은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 Grand Prix를 비롯하여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크라코프 국제판화 트리엔날레(폴란드) 심사위원상, 탈린 국제판화 트리엔날레(에스토니아) Grand Prix, 류블라나 국제판화비엔날레(슬로베니아) Grand Prix, 올덴부르크 국제판화 트리엔날레(독일) 올덴부르크 시장상, 노보시비르스크 국제판화 트리엔날레(러시아) Grand Prix를 수상한 바 있다.

오늘하루를 그리다 신하순(83동양)

신하순 동문의 개인전 '오늘하루를 그리다'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진부령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오늘 하루를 그리다'는 주제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대부분은 작가의 그림 일기 같은 느낌을 준다. 신동문의 그림은 사실을 바탕으로 정갈하고 절제미가 돋보이며 단아하다. 그는 거창한 이야기보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을 담아낸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



트트가르트 국립미대 아우프바움을 졸업했다. 1996년 '오늘의 한국화 그 맥락과 전개'(덕원미술관, 서울)를 시작으로 2020년 '눈으로 떠나는 여행: 화가의 여행 그리고 풍경'(이천시립월전미술관)까지 17회의 그룹전과 2005년 '신하순, 기억의 수평'(갤러리아트사이드, 서울) 등 8회의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히 작업해오고 있다.

Desert Fish 김경애(83동양)

김경애 동문의 개인전 'Desert Fish 사막물고기'가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San Pedro에 위치한 Face A gallery에서 열린다. 김동문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사막은 모래와 태양만 있는 거대하고 위협적인 침묵의 공간입니다. 황량하고 먼 사막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막은 오아시스와 그 안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의 아름다움을 감추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느끼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한 사막 여행자가 그들 안에서 타오르는 듯



한 갈증을 이겨내며 천천히 사막을 건너갑니다.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사람들로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며 삶을 사막을 살아가는 물고기에 빗대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김동문은 1986년 중앙미술대전 특선, 1988년 한국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하였으며,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 안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다. 현재 본회와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fe-공중산수 김종구(84조소)

김종구 동문의 개인전 'fe-공중산수'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스텔라갤러리에서 열렸다. '씻가루 산수화'로 잘 알려진 김동문은 씻가루로 작품 속 세계를 창조해낸다. 비자연 소재처럼 느껴지는 쇠는 자연에서 추출해낸 자연 소재이자 이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이며 인간에게 이로운 물건들로 만들어져 도움도 주지만 살생 무기로도 둔갑한다. 그는 씻가루로 이 세상의 양면성을 이야기한다. 소재와 형태에 연연하지 않는 그의 작품 세계는 외연을 확장하며 잃어버림을 통해 얻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한편 김동



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조소 석사와 영국 첼시 예술대학 대학원에서 조소 석사과정을 수료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1989년 제12회 중앙미술대전 조각부문 특선, 1990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2002년 제13회 김세중 청년조각상을 수상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독일 리트아트파운데이션, 싱가포르 비즈니스센터 등 세계 전역의 미술관에서 소장 중이다.

투명한 색상 박천수(87서양)

박천수 동문의 개인전 '투명한 색상 pellucid palette'이 지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켈리아에서 열렸다. 박동문은 수채화를 중심으로 작업하는 예술가로서, 수채화의 투명한 성질과 얼룩 효과를 통해 정신적 분위기를 일으키고 감각적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박동문의 작품들은 물의 움직임과 종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따르며 그림 속에 공간과 깊이감을 만들거나, 수채화의 얼룩 효과를 통해 감각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한다. 색상이 흘러 퍼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움직임과 유동



성을 암시하여, 물의 흐름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등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 효과는 특히 투명성과 결합되었을 때 강력하게 작용하여, 관람자를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는 깊이와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2003년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후 강의와 작품 활동을 병행했다. 뉴욕에서 3회의 개인전과 1회의 2인전을 열었고 뉴욕 한국문화원 그룹전을 비롯한 20여회의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2004년에는 putnam arts council이 주는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13 회원동정-전시

꿈의 풍경 임상빈(95서양)

임상빈 동문의 개인전 '꿈의 풍경'이 지난 4월 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슈퍼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임상빈은 2006년부터 시작한 화획(strokes) 시리즈 회화작품을 보여주었다. 화획시리즈는 수많은 획들이 얹히고설키며 화면에 기운생동을 표현한다. '꿈의 풍경'전에서는 2021년 이후 진행된 다양한 색감의 화획 신작을 선보였다. 임상빈의 작품은 중첩된 다층(collective layers) 개념으로 화면 위에 수많은 붓질을 중첩하여 쌓아 올린 물감 층의 다층적 입체이자 평면과 대면함을 보여준다. 작가의 회화 작업



은 기존 사진 작업과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사진 작품이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본 파편적 이미지의 집적이란 측면에서 작가의 조형 언어와 연장선에 있다. 화획 작품은 임상빈이 오랜 기간 사진, 회화, 설치, 영상을 통해 시도해온 주제와 기법이 정제된 결과물이다. 한편 임상빈은 모교 서양화과 졸업 후 예일대 대학원 페인팅, 판화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12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비 이진희(00동양)

이진희 동문의 개인전 '나비'가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도스에서 열렸다. 이진희는 자연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감하며 그림을 그려왔다. 어렵지 않지만 조심스럽게 사유하는 과정이 추상으로 드러난다. 미묘한 떨림으로 구별되는 경계를 알 수 없기에 몽환적 느낌은 찰나가 되기도 한다. 강압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흐르는 과정이 물성 간에 쌓이고, 그 무엇을 확인시켜주는 게 이진희의 작품의 매력이다. 한편 이진희



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뉴욕 Pratt Institute에서 페인팅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Layer Upon layer(63스카리아트미술관), 2015년 기다린 시간(갤러리도울), 2019년 써드플레이스(푸른밤) 등 8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22년 '자기만의 방'(아트스페이스이색) 등 18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2014-15년 장흥아뜰리에 4, 5기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2015 갤러리 도울 공모 선정작가이다.

A Portrait of Wednesday 정성윤(00동양)

정성윤 동문의 개인전 'A Portrait of Wednesday'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하미술관에서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열렸다. 동양화를 수학하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담아내는 정성윤은 대지, 호수, 해안가, 공원 등의 잔잔한 풍경을 돌아볼 때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순간들을 섬세하게 표현해온 작가이다. 이번 전시 'A Portrait of Wednesday'는 그간 작업해 온 정성윤의 회화들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주일 가운데, 우연히 휴식이 찾아온 수요일의 풍경을 깊이 관찰하고 내면화한 잔상들을 옮겨 놓았다는 상상에서 기획되었다.



정성윤의 작업에는 이처럼 바쁜 도시의 일상을 잠시 벗어난 하루, 사색에 접어드는 순간 파도처럼 밀려오는 내면의 자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편 정성윤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마카조아 신진작가상, 겸재미술관 내일의 작가상, Shinhan Young Artist Festa 선정작가 외 다수 수상하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림 회에 그림 화 최수련(석서양)

최수련 동문의 개인전 '그림 회에 그림 화'가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조선에서 열렸다. 동북아시아의 전통과 고전 이미지, 그것이 다시 현대에 재생산된 모습을 유화로 그리던 최수련은 고전 괴담, 동양화론서, 예언서 등 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글세대를 위한 필사' 연작은 최수련이 수집한 원전의 한문 텍스트를 그리고, 독음과 한글 해석을 첨가한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동양화에서 꽃과 나무와 돌, 사람과 사물을 그리는 법 등이 상세히 설명된 'The Tao of Painting'(1956, Mai Mai



Sze 지음)의 페이지들을 그림의 바탕이자 이면지로 활용한 작품을 주로 제작, 전시하였다. 최수련의 그림은 정의할 수 없는, 이질적이고, 양가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다. 반복해 등장하는 "죽음 죽음"은 농담처럼 다가오기도, 생의 무상함을 일깨우듯 허탈하고 씩씩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 최수련은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태평선전'(2020, 인천아트플랫폼), '망한 나라의 음악'(2019,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8, 오뉴월 이주현)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어떤 Norm(all) 홍민기(11주소)

홍민기(홍민키) 동문이 지난 4월 18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2023년 상반기 현대미술 기획전 '어떤 Norm(all)' 단체 기획전에 참여한다. 전시 제목인 '어떤 Norm(all)'은 '정상적인', '평범한'이라는 뜻의 영단어 "노멀(normal)"과 '모두'를 뜻하는 "올(all)"을 결합한 합성어다. 제목은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성과 정상가족 관념에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정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홍민기는 모교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NPC 튜토리



얼(2017), 들랑날랑 혼삿길(2021), 낙원(2023) 등 총 3점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이 중 NPC 튜토리얼은 2017년 제17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최고구애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들랑날랑 혼삿길'에서 직접 성소수자 당사자 입장에서 커밍아웃과 커밍아웃 이후를 다루는 다큐를 제작하는 등 성소수자로서의 담론과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시대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영화감독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3 금호영아티스트 조재(박22주소)

조재 동문이 금호영아티스트에 선정되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 2023금호영아티스트전에 참여하였다. 조재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모방적인 관계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지배적 감각을 탐구하는 작가다. 사회에 범람하는 이미지가 인간에 의해 확산·소멸·재생산되는 과정을 '이미지 펌프질'이라고 이름붙이고 특히 재난에 대한 이미지가 '펌핑'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포



스트 인터넷 시대 도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디지털 이미지를 각종 산업 재료로 물질화해 인터넷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한 조각 설치 작업을 전시한다. 한편 조재는 성균관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영국 왕립예술대학 회화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모교 조소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5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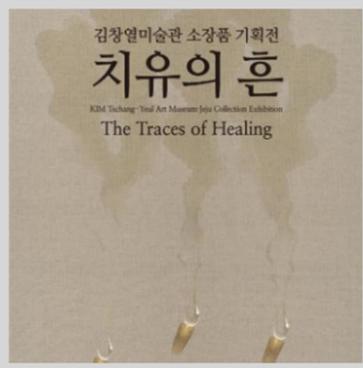
I-EXPLORER

류은선(16동양)
2.28-5.14
H.ORM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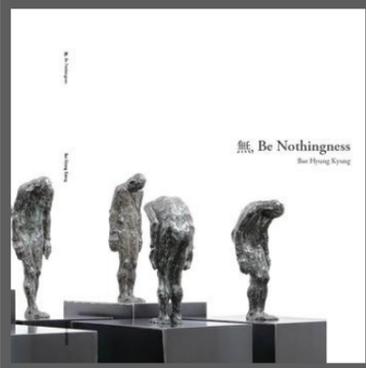
시간/물질:생동하는 뮤지엄

신미경(86조소)
3.2 - 6.10
스페이스 씨



치유의 흔

김창열(48회화, 1929-2021)
3.7-7.9
김창열미술관



無, Be Nothingness

배형경(74조소)
3.16-5.20
갤러리 시몬



빛의 전언

김인중(59회화)
3.16-12.29
KAIST 미술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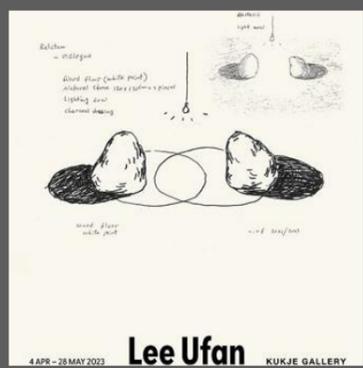
심문섭:시간의 향해

심문섭(61 조소)
3.17 - 6.25
경남도립미술관



VOICE OF SILENCE

김순기(70회화줄)
4.4-5.13
아라리오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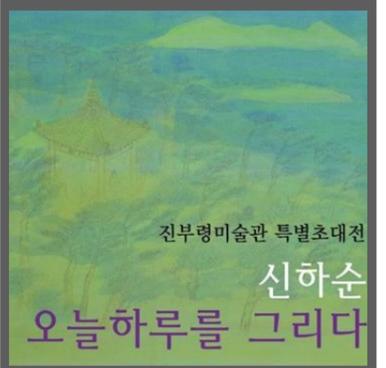
이우환 개인전

이우환(56회화)
4.4-5.28
국제갤러리



추상/하기

권재나(10서양)
4.5-5.13
갤러리샘



오늘 하루를 그리다

신하순(83동양)
4.6-5.14
진부령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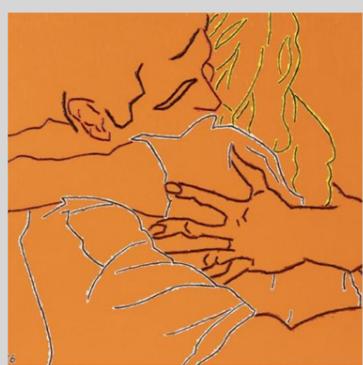
전환기, 경계에 선 김종영

김종영(특별회원, 1915-1982)
4.7-6.18
김종영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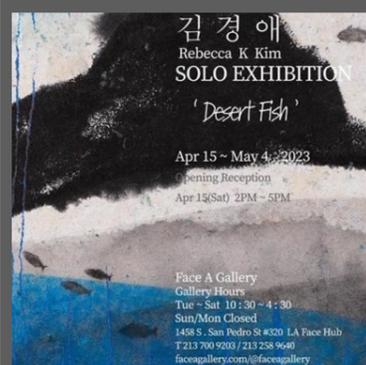
젓빛과 푸름 사이

조은령(87동양)
4.14-5.4
아트레온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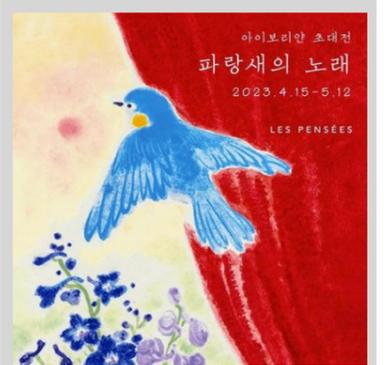
하이 앤 드라이

서상익(97서양)
4.14-5.26
갤러리퍼플



Desert Fish

김경애(83동양)
4.15-5.4
Face A gallery



파랑새의 노래

신경아(96서양)
4.15-5.12
레팡세 청담



머신러닝 미술사 공부

심철웅(78회화)
4.26-5.14
CICA 미술관



흔들리는 빛

김지아나(박06디자인)
4.31-5.13
서울옥션 강남센터



외비우스적 노마드

허진(81회화)
5.9 - 5.27
갤러리Pal



마음을 담은 풍경, 안양

오용길(65회화)
5.23-6.18
평촌아트홀



성기점 개인전

성기점(58회화)
5.24-6.4
세종뮤지엄갤러리